

인터넷 사용과 지각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이 동 만**, 이 영 숙***, 안 현 숙****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Use of Internet

Lee, Dong-Man, Lee, Young-Sook, Ahn, Hyun-Sook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has been widely studied in IS research and Internet has been expanded very rapidly in moder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nternet acceptance model and test it empirically. This study extends the TAM model and motivation theory by adding gender. This model posits that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playfulness correlate with Internet use.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suggested the three factors -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playfulness - affect the use of Internet. Second, Difference just appeared in case of perceived use of use between genders but not others -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playfulness.

Third, the result represented that there was nothing that affected the use of Internet by itself among the three factors - perceived usefulness, ease of use and playfulness and perceived usefulness used gender as a moderated variable in the case of the use of Internet.

* 본 논문은 2000년도 경북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포항 1대학 e-경영전공 전임강사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강의조빙교수

I. 서론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대학, 연구소, 관공서, 기업체 등에서 기관간이나 조직간의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남녀 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되었고 인터넷 인구도 앞으로 당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의 인터넷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초기에 비해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여성 비율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 인터넷 사용자 프로파일(KNP: 아이엠리서치(IMResearch)와 한국광고단체연합회 공동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인터넷 사용자 통계조사)에서 발표한 1999년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 인터넷 인구의 현저한 증가이다. 이런 경향은 세계적인 인터넷 사용자 보고서인 GVU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1994년 가을 조사 때는 10%에 불과하던 여성의 비율이 1998년에는 33.6%를 차지했다. 또한, 국내 여성 네티즌의 경우에도 80% 이상이 20대 직장여성이고, 10대와 30대 이후의 전업주부는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비즈니스, 1999. 10. 18].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미국의 경우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의 비율이 20% 정도였으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가입자가 1,900만명인 세계 최대의 PC통신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의 경우 여성 가입자의 수가 53%로 남성을 앞질렀고, 국내에서도 10%대에 머물던 여성인구가 3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동아일보, 1999.8.5].

이처럼 여성 인터넷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 확산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제시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TAM)과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을 검토하고 두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성별을 추가

함으로써 기존모델을 확장하여 인터넷 사용과 지각의 성별 차이 및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정보기술수용모델(TAM)

Davis(1989)가 제시한 기술수용모형(TAM)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용에 대한 1980년대 연구들과 1990년대 연구들을 구분하는 가장 주목을 받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개발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의 두 척도는 1980년 이후의 기술 수용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이용될 정도로 핵심적인 구성개념이다. 따라서 먼저 사회심리학 모델인 합리적 행동이론(TRA)과 이를 확장한 계획행위이론(TPB) 그리고 Davis의 기술수용모형(TAM)을 설명하고 난 후,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수용모형(TAM)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1.1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여러 분야에 걸쳐 행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성공적이라고 밝혀진 행위의도모델이다. TRA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고(Ajzen & Fishbein, 1980), 특정한 상황에서 컴퓨터 이용행태의 결정요인을 연구하는데 적절한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다(Davis et al., 1989). Davis의 기술수용모형도 이 TRA를 기초로 하여 수정된 모형이다. TRA는 사회심리학에서 널리 연구된 모델이며, 의식적으로 의도된 행위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이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TRA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구체화된 행위의 성과는 그 행위를 수행하려는 행위 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그리고 행위 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2.1.2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계획된 행위이론(TPB)은 지각된 행위 통제라는 구성개념을 추가함에 의해 TRA를 확장한 것이다. 이 지각된 행위 통제란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원과 기회의 소유 혹은 없음”에 대한 개인의 지각들이다. 이것은 통제에 대한 신념과 지각된 편리성으로 이루어진다. 원래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에 직접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Ajzen & Madden (1996)의 연구에서 간접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1.3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Davis(1986)에 의해 도입된 기술수용모형(TAM)은 TRA의 변형이며,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수용을 모델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AM은 컴퓨터 수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이러한 설명은 광범위한 최종사용자 컴퓨팅 기술들과 이용자 모집단에 걸쳐서 이용자 행위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다. Davis는 컴퓨터 수용 행위의 주요 관련변수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이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변수를 사용하여 기술수용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 변수가 TAM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이용용이성보다 유용성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용용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유용성을 간과했던 시스템의 설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유용성이 사용자 수용과 강한 관련을 갖고 있고, 성공적인 시스템을 설계 혹은 구현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2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

2.2.1 즐거움

동기이론은 개개인의 정보기술 수용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이론이다. 동기이론 학자들은 개개인의 행위에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영향을 구별하였다. Deci(1975)의 연구에서 외적 동기는 활동의 성과로 언급하였고, 이는 직무 성과 향상, 지불, 기타 등과 같은 활동 그 자체와 구별되는 가치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적 동기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이외에 명백한 논거가 없는 수행활동의 성과로 언급하였다. 정보기술수용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외적 동기관점에서 수행되어왔다. Davis et al.은 작업장에서 컴퓨터의 사용에 있어서 외적·내적 동기의 상대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외적 동기으로써는 지각된 유용성을, 내적 동기으로써는 지각된 즐거움으로써 정의하였다. 그들은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사용의 이용용이성의 영향력을 매개변수로 하였다. 그들은 유용성이 작업장에서 컴퓨터 사용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고, 즐거움은 유용성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였다.

Igbaria et al.(1996)은 시스템 사용은 외적 동기와(지각된 유용성) 내적 동기(지각된 즐거움)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각된 즐거움 같은 개개인의 내적 동기요인의 채택은 이론적 타당성이 필요한 구성요소이다. 예를 들면, Davis et al.의 지각된 즐거움의 측정은 활동작용, 탐색적 행위, 호기심, 그리고 자극과 같은 포괄적인 내적 동기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내재적인 두드러진 개념으로써 ‘즐거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Csikszentimihalyi(1975)와 Deci(197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지각된 즐거움을 3가지 차원에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집중화(concentration): 즐거움 상태에서, 개

개인의 관심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 초점은 제한된 자극 분야로 부적절한 생각과 지각은 제거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은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빠져들게 된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고 있는 동안 즐거운 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그들의 관심은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호기심(curiosity): Malone은 즐거움에 빠져 있는 동안, 개개인의 감각 또는 인지적 호기심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인터넷은 하이퍼링크(hyper-link)와 멀티미디어 효과와 같은 기술적인 특성을 통해서 감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인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북마크(bookmark)와 하이퍼링크(hyper-link)와 같은 옵션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술능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극시켜 준다.

즐거움(enjoyment): 개개인들이 즐거움 상태에 있을 때 내적으로는 흥미를 느끼고 있고, 외적 보상보다는 즐거움 그 자체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2.2.2 인터넷의 사용

인터넷은 유용성, 재미, 흥미, 오락과 같은 목적 등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Business Week지에 따르면 수천만의 사용자들이 현재 다양한 이유로 인터넷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즉, 인터넷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해 주기도 하고(Burge, 1995),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인터넷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작업"의 범주로 분류된다. 또한, 사용자들은 "재미"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하기도 하고 취미나, 관심 또는 흥미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사이트에 접근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의 사용은 미래의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2.3 정보기술에서 성별차이 관련 선행연구

2.3.1 Truman & Baroudi의 연구

Truman & Baroudi(1994)은 IS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급 경영층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차이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IS관련 직업에서 여성의 고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반해, 제시한 데이터는 IS가 성별 차이의 문제점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차별적인 관행의 시사적인 문제점을 알았다. 즉, 직무수준, 나이, 교육, 그리고 업무 경험을 통제했을 때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적은 봉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 Straub & Gefen의 연구

Straub & Gefen(1997)은 IT확산 모델에 성별을 추가함으로써 TAM모델을 확장시켰다. TAM 모델은 정보기술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써 IS 연구에서 널리 연구되어온 모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문화간 차이가 있음을 알았지만, 성별의 영향력이 무시되어왔다. 성별은 문화의 기본적인 한 형태이다. 컴퓨터에 기반한 미디어의 사용과 신념에 관련된 성별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392명의 남·녀 응답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은 e-mail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지식 근로자들에서 추출되었다. 연구결과, 여성과 남성은 e-mail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e-mail 사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T확산 모델에 있어서 문화적 영향력에 따라 성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즉, IT 개발에 있어서 조직의 상황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성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2.3.3 Venkatesh & Morris의 연구

Venkatesh & Morris(2000)는 TAM모델을 사

용하여 작업장에서 개개인의 정보기술 사용과 수용에서 간과되어온 성별 차이를 조사하였다. 5개월 동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작업자 342명중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과 정보기술 사용행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여성과 비교해 볼 때, 남성들의 정보기술 사용의 의사결정은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고 반대로, 여성들은 정보기술 사용의 용이성과 주관적 규범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2.3.4 기타연구

심리학 연구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성별 차이를 연구하였고(Bem and Allen 1974), 정보처리 관점에서 성별사이에는 자존심(self-esteem)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Tashakkori, 1993).

여성과 남성의 컴퓨터 이용 정도의 차이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 결과에 의해 주로 두 가지 요인이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첫째는 컴퓨터가 처음 등장하고, 네트워크가 시작된 시기의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는 과학분야에 종사하는 남성의 영역이었고, 현재에도 컴퓨터를 오랜 시간 전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과학분야 또는 컴퓨터 관련 분야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숫자는 소수라는 점이다. 둘째는 여학생들이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컴퓨터 이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Abela, 1997) 지적하였다.

2.3.5 성별에 따른 정보기술수용

Gefen과 Straub(1997)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 방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TAM 각 요소에 성별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언어적 특성을 e-mail의 사용에 연관시켜 TAM

을 확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현시와 매체 풍부성(SPIR), 지각된 유용성(PU), 지각된 이용용이성(PEOU)이 남성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기술의 수용 과정 상 이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2.4 정보화사회에서 성별문제

정보화 사회를 맞아 인터넷은 시·공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전자불도저의 기세로 성의 장벽 또한 무너뜨리리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데 인터넷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장벽은 성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담론이 우리의 희망을 부추긴다. 그 담론이 확산되는 데에는 정보화사회가 남·녀 평등을 실현시킬 것이라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유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2.4.1 국가정책과제로서 성별문제

우리나라에서 성별문제를 국가 정책과제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대는 여성정책의 도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렵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던 우리 사회에도 정보 보호의 물결이 밀려 들어왔다. 전국 1천만대 전화시대가 열리고 정부안에서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성별 문제는 국가 발전계획의 한 분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성별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구가 탄생하고 입법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개발부문계획은 제7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1992-1996)에서 벗어나 별도의 부문계획으로 독립되었다. 제7차 5개년 계획상 여성개발부문계획은 교육, 고용, 문화·사회활동, 복지, 국제협력 등 5대 분야에 걸쳐 주요시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1995년에 세계화 추진과제의 일환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으로 새롭게 전환되었다.

2.4.2 국내·외 연구동향 및 연구배경

단순 가입률에서 성별차이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용정도에는 성별이 존재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기에 는 이용기간이 짧으므로 미숙한 상태이고 필연적인 동기에 의한 적극적인 이용단계는 아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국내 개인 도메인의 등록상황(한국일보, 1997, 7. 9)을 보더라도 여성은 7.9%, 남성은 92.1%를 차지해 현저한 성별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생리적으로 기술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MC)이용이 저조하다는 결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재는 기술 습득력이나 적응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CMC 상의 콘텐츠나 대화의 흐름이 남성위주라는 것이 여성의 참여율을 감소시키는 더 큰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성별 차이에 대한 배경하에 지금까지 정보기술 즉, 인터넷 사용과 지각에 있어서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

었지만 다른 연구분야에서 조사된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를 요약해 보면 <표 1>과 같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가 정보기술에 대한 것보다 사회 언어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를 수행한다면 최근에 널리 폭발적으로 증가된 인터넷에 대한 사용과 지각의 성별 차이 및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5 인터넷

2.5.1 인터넷 이용현황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전문조사기관인 인터넷메트릭스社에 의뢰하여 지난 3월 전국 3,582가구 10,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2001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7세 이상 월평균 한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2,093만명(이용률 48.6%)으로 지난 2000년말 1,904만명(44.7%)에서 3개월만에 189만명(3.9%p)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국외의 연구동향 및 연구배경

연구자	연구내용
Hofstede(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성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함. 남성은 출세욕과 수익력이 있음. 여성들은 개인간에 일어나는 관점, 서비스,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음.
Deaux(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 여성들은 온화하고 감정적이고 남성은 독립적이고 경쟁적임.
Doley(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동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함. 여성의 행동은 재능이 있고, 부드러우며 수다스러움. 남성행위는 공격적이고 독립적이며 논리적이고 경쟁적임.
Coates(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언어학적 연구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은 차별화 된 언어 공동체를 형성 하는 것처럼 상이한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음.
Preisler(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들은 우유 부단하고, 친밀성 및 일치성이 강함. 남성은 경쟁적이고 독립적임.
Tannen(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의 의사소통 유형은 사회적 계층의 관념에 기반을 둠. 여성의 의사소통의 유형은 네트워크 지향적임.
Johnson(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사례 연구를 통해서 조사함.

2.5.2 성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조사한 성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성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구분	이 용 률 (%)				
	1999.10	2000.3	2000.8	2000.12	2000.8 대비증가
남성	30.0	41.5	44.4	50.9	114.6%
여성	14.8	24.6	32.6	38.6	1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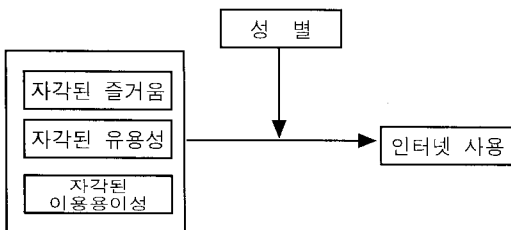
구분	이용자 수 (만 명)				
	1999.10	2000.3	2000.8	2000.12	2000.8 대비증가
남성	631	873	946	1083	137
여성	312	521	694	821	127

자료: 한국인터넷 정보센터[2000]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의 설정

이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기술수용모델인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과 동기이론인 지각된 즐거움과의 관계에서 성별차이에 대한 본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면 <그림 1>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Davis(1987)의 기술수용모델(TAM)을 토대로 주요 변수를 도출하고 인터넷 사용과 지각에 있어서 성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모형은 개개인의 내적 동기이론에 기반을 두고 TAM을 확장한 것이다. 지각된 즐거움이 본 모델의 확장된 부분이고, 여기에 성별을 추가하였다. 지각된 즐거움은 내적 동기가 인터넷이 개개인의 수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구성요소이고, 성별 또한 고려해 볼 내용이다.

3.2.1 지각된 즐거움과 인터넷 사용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첫 번째 가설은 지각된 즐거움과 인터넷 사용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사용하기 어려운 정보기술은 즐거움을 덜 느끼기 때문에 정보기술의 사용이 지각된 즐거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되었다. 또한, Csikszentmihalyi(1975)는 개개인에 대한 활동의 가능성은 즐거움의 상태를 북돋워 준다고 주장하였다. 사용하기 쉬운 IT는 개개인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지각된 즐거움은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3.2.2 지각된 이용용이성 및 지각된 유용성과 인터넷 사용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Davis et al.(1989)은 정보기술 사용은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의한다고 하였다.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동안 비교적 인지적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예를 들면, 개개인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것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이다. 만일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동안 비교적 적은 노력을 들일 것이라고 지각한다면 개개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더 잘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다(Adam et al. 1992). Davis(1989)에 따르면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내재적으로 인간-컴퓨터 간의 상호 작용적 관점에서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용자의 신념 때문에 시스템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상의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TAM의 핵심 구성개념이며, TAM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두 변수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수용을 설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모형에서도 이 두 변수인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유용성이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지각된 유용성은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3.2.3 성별에 따른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차이에 관한 가설

여성은 전형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컴퓨터 적성을 보이고 (Felter, 1985), 더욱 더 높은 컴퓨터에 대한 열정의 수준을 보인다(Morrow et al., 1986). 또한, IS연구에서도 여성들간에 컴퓨터 열정의 수준이 더욱 더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Igbaria & Chakrabarti, 1990). 실제로 여성들은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남성보다 몹시 알고 싶어하는 열정을 더 가지고 있다(Bozionelos, 1996). 심리학 연구에서도(Hunt & Bohlin, 1993) 지각된 이용용이성의 결정요인으로 컴퓨터 열망과 컴퓨터 자기 효험간에 상반된 관계를 보여주었다.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전형적으로 사용자 수용에 대한 장애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Venkatesh & Davis, 1996), 낮은 이용용이성의 평가는 사용자 의사결정 수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지각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지각된 즐거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설 5: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설 6: 지각된 유용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3.2.4 성별에 따른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과 인터넷 사용

정보기술 수용의 결정요인으로써 지각된 유용성은 성별차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의 결과로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남성의 업무 역할은 전형적으로 가장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가정의 역할은 단지 부수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Barnet & Marshall, 1991). O'Neill(1982)은 남성들은 그들의 업무에 대한 성취, 탁월함을 훨씬 더 강조한다고 제시하였고, Hoffman(1972)은 남성은 여성보다 성취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남성은 여성보다 개인 주의적인 업무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였다(Carlson, 1971; Gill et al., 1987; Stein & Bailey, 1973). 또 다른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남성의 특성은 "목표 지향적"이고 논리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Rosenkrantz et al., 1968). 더욱이 Bem의 성 역할에 대한 목록에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남성다움의 특성(예를 들면, 독단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Taylor & Hall(1982)에 의한 메타분석에서 남성다움의 척도는 주로 도구적인 행위와 관련된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Minton & Schneider(1980)은 남성은 여성보다 더욱 더 업무 지향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각된 이용용이성의 역할에 대한 성별차이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각된 이용용이성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의 모든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자기효험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Bandura, 1977, 1982, 1986). 심리학과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용이성, 어려움에 대한 지각의 결정요인으로써 컴퓨터의 자기효험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에 있어서 배움의 초기단계와 사용기간 동안 정보기술 사용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여성이 높은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측면의 중요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Hofstede (1980)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인터넷 사용은 지각된 유용성, 이용용이성, 즐거움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7: 성별에 따라 지각된 즐거움과 인터넷 사용간의 관계가 달라진다.

가설 8: 성별에 따라 지각된 이용용이 과 인터넷 사용간의 관계가 달라진다.

가설 9: 성별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과 인터넷 사용간의 관계가 달라진다.

3.3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Davis의 연구에서 채택되었고 이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지각된 즐거움에 대한 측정도구는 현재 흐름 이론(flow theory)과 내적 동기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3.3.1 즐거움(playfulness)

즐거움이란 인터넷을 이용하는 동안 개인이 내적 동기를 수행할 것이라는 개개인의 확신에 대한 강도를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집중정도, 즐거움,

그리고 호기심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개개인 상태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즉, 인터넷 이용 시 즐거움, 흥미정도, 호기심 자극, 탐구심, 상상력 등 9개 항목을 측정항목으로 사용하였다.

3.3.2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이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유용성은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개개인의 외적 동기와 관련된다. Davis, Bagozzi, 그리고 Warshaw(1992)의 4개 측정항목은 이러한 요인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고(작업장에서 컴퓨터라기보다는 인터넷의 유용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됨), 이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용용이성은 Davis, Bagozzim 그리고 Warshaw(1992)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로 역시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Davis(1989)는 컴퓨터 수용 행위의 주요 관련 변수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를 말하고 지각된 이용용이성이란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Davis의 기술수용모형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각각 Davis(1989)가 제시한 측정항목 6개를 사용한다.

3.3.3 인터넷 사용

Davis, Bagozzi, 그리고 Warshaw(1992)은 인터넷 사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총 사용시간, 즐거움을 위한 시스템 사용과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 사용을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용의 빈도는 Raymond(1985)와 Srinivasan(1985)을 포함해서 다른 연구에서도 시스템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Davis(1989)가 제시한 인터넷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정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항목인 시스템의 이용 빈도와 이용시간 측정항목 2개를 사용하였다.

3.3.4 성별

정보화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가사노동이 자동화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여성의 경제 사회적 참여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자연히 향상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가 민주화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 성의 평등이 도래할 것으로 보는데, 엘빈 토플러에 의하면 멀티미디어의 정보화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수평적 협력 관계가 사회기능을 형성할 것이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재택 근무 수준이 곧 그 나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은 부지런하고 섬세하며 창의성도 높지만 열악한 신체조건과 남성위주로 짜여있는 각종 사회제도 아래 능력 발휘를 제한 받아 왔는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시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정보화사회의 과정에서 여성의 약점과 규제를 해소해 주었을 때, 여성의 특성은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이 사회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3.4 설문지의 구성

각 문항은 대부분 리커트 7점 척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확실히 그렇다'까지의 응답이 가능하다. 이상 본 연구에 포함되는 연구변수와 각 변수에 대한 설문 문항 번호를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표 3> 설문지의 구성

변 수	문 항 번 호	문항수
지각된 즐거움	1, 2, 3, 4, 5, 6, 7, 8, 9	9
지각된 유용성	10, 11, 12, 13, 14, 15	6
지각된 이용용이성	16, 17, 18, 19, 20, 21	6
인터넷 사용	22, 23, 24	3
* 데이터 처리시 역 코딩해야 할 항목	13, 14	

IV. 자료분석 및 결과

4.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1.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인터넷의 지각과 사용에 있어서 성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이용하고 표본은 인터넷 사용경험이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서울지역과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자의 판단과 편의에 따라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배부하였다. 우선, 인터넷 사용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인터넷 정보센터에서 조사한 보고서(남성: 61%, 여성: 38%를 기준)를 바탕으로 설문에 응할 남·녀 비율을 정하였고, 다음으로 인터넷 사용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여기서 인터넷 사용자는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2001, 1월)에서 조사한 '월 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 하는자'로 정의된다.

4.1.2 표본의 특성

응답자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가장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해 보는 것이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로 남성이 212명으로 61%, 여성이 132명으로 38%를 차지

하여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조사한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비율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이 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장 관심사가 되었던 30대 중에서도 주부는 4%만이 표본대상을 구성하였다. 이를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응답자의 특성

구 분		명 (비율)
성 별	남	212(61.6%)
	여	132(38.4%)
직 업	전 문 직	111(32.1%)
	사 무 직	135(39%)
	서비스직	26(7.5%)
	자 영 업	21(6.1%)
	학 생	24(6.9%)
	주 부	14(4%)
	기 타	13(4.3%)
한달 수입	100만원미만	65(19.1%)
	100 ~ 150만원미만	80(23.5%)
	150 ~ 200만원미만	63(18.5%)
	200 ~ 300만원미만	94(27.6%)
	300만원이상	39(11.4%)
학 력	중졸이하	1(0.3%)
	고 졸	81(23.3%)
	대 졸	214(61.7%)
	대학원이상	43(12.4%)
	기 타	5(12.3%)
연 령	20대	132(38%)
	30대	164(48.1%)
	40대	42(12.1%)
	50대	6(1.7%)

4.1.3 분석방법

연구내용의 통계처리는 SPSSWIN을 이용하

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될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후, 지각된 즐거움, 이용용이성, 유용성이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즐거움, 이용용이성, 유용성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변수 측정항목들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지만, 표본이 바뀌었으므로 새로이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4.2.1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α 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분석결과, α 값이 0.7을 넘으면 신뢰성이 상당히 양호하고, 0.6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신뢰성 검증결과 모든 연구변수가 0.7이상으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신뢰성 검증 결과

연구 변수	최초 항목수	최종 항목수	α 계수
지각된 즐거움	9	6	0.9008
지각된 이용용이성	6	4	0.8545
지각된 용이성	6	6	0.9510
인터넷 사용	2	2	0.7288

4.2.2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도구의 구성타당성 검증에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Varimax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했으며, 요인 수 결정기준은 아이겐 값(eigen value) 1을, 관련성 있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의 기준은 0.4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도구는 대부분 기존 문헌에서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들이나, 영문을 번역한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응답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각된 즐거움은 새로 도입한 변수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 6>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구분	변수			
	1 (유용성)	2 (즐거움)	3 (이용용이성)	4 (인터넷 사용)
B11	.847	.227	.191	.129
B9	.833	.258	.215	.127
B10	.832	.252	.226	.127
B8	.819	.258	.229	.149
B12	.809	.191	.228	.205
B7	.800	.239	.238	.114
A7	.195	.833	2.995E-02	1.256E-02
A5	.143	.785	.193	.174
A4	.171	.785	.146	9.289E-02
A9	.266	.775	2.990E-02	-.148
A8	.304	.767	9.720E-02	-6.461E-03
A6	.144	.759	.124	.111
B2	.254	.184	.824	.135
B3	.205	3.499E-02	.821	.136
B1	.172	.156	.803	.234
B6	.371	.137	.667	-5.251E-02
C2	.208	6.870E-02	8.956E-02	.871
C1	.237	4.519E-02	.267	.777
고유치	8.190	2.514	1.525	1.157

4.3 가설검증

4.3.1 가설 1, 2, 3의 검증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지각된 즐거움이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서 지각된 즐거움을 독립변수로, 인터넷 사용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즐거움은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R²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0.037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각된 즐거움과 인터넷 사용간에는 다른 요인에 비해 영향력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서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독립변수로, 인터넷 사용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지각된 유용성이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서 지각된 유용성을 독립변수로, 인터넷 사용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유용성이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표 7>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 이용용이성, 유용성의 회귀분석 결과

요인	B	beta	T	Sig. T	R ²	Sig. F
즐거움	.251	.191	3.591	.000	.037	.000
지각된 이용용이성	.526	.391	7.772	.000	.153	.000
지각된 유용성	.480	.420	8.439	.000	.177	.000

4.3.2 가설 4, 5, 6의 검증

가설 4, 5, 6은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이용용이성만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유용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따른 성별차이 검증

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지각된 즐거움	남	4.2194	1.1384	-.241	.810
	여	4.2505	1.1917		
지각된 이용용이성	남	4.6363	.8451	2.868	.004
	여	4.3622	.8458		
지각된 유용성	남	4.8937	1.3936	1.400	.162
	여	4.6799	1.2785		

4.3.3 가설 7, 8, 9의 검증

가설 1, 2, 3에서 정보기술수용모델의 중요요인인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과 내적 동기이론인 지각된 즐거움은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세 요인이 성별에 따라 인터넷 사용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가설 7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가설 7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절변수로서의 성별이 지각된 즐거움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짐으로써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각된 즐거움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성별이 인터넷 사용과 상호

작용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먼저 지각된 즐거움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있어, 지각된 즐거움 측정항목 6개를 평균하여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빈도에 의거하여 응답자를 세 집단(고·중·저)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넷 사용 시 즐거움을 높게 지각하는 응답자 집단을 고집단(n=114명)으로 구분하고, 중간정도로 지각하는 응답자 집단을 중집단(n=114)으로, 낮게 지각하는 응답자 집단을 저집단(n=115)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의도적인 grouping을 통한 ANOVA를 수행할 시 정보의 손실과 해석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지각된 즐거움 세 집단과 성별이 인터넷 사용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남녀별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즐거움이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기각되었다.

가설 8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절변수로서의 성별이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짐으로써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성별이 인터넷 사용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가설 7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먼저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있어, 지각된 이용용이성 측정항목 6개를 평균하여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빈도에 의거하여 응답자를 세 집단(고·중·저)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넷 사용 시 이용용이성을 높게 지각하는 응답자 집단을 고집단(n=88명)으로 구분하고 중간정도로 지각하는 응답자 집단을 중집단(n=117)으로, 낮게 지각하는 응답자 집단을 저집단(n=130)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의도적인 grouping을 통한 ANOVA를 수행할 시 정보의 손실과 해석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지각

된 이용용이성 세 집단과 성별이 인터넷 사용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남녀별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용용이성이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9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절 변수로서의 성별이 지각된 유용성이 상호작용효과를 가짐으로써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각된 유용성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성별이 인터넷 사용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먼저 지각된 유용성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있어, 지각된 유용성 측정항목 6개를 평균하여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빈도에 의거하여 응답자를 세 집단(고·중·저)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넷 사용 시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는 응답자 집단을 고집단(n=106명)으로 구분하고 중간정도로 지각하는 응답자 집단을 중집단(n=107)으로, 낮게 지각하는 응답자 집단을 저집단(n=124)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의도적인 grouping을 통한 ANOVA를 수행할 시 정보의 손실과 해석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지각된 유용성 세 집단과 성별이 인터넷 사용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남녀별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유용성이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9는 채택되었다. 여기서 지각된 유용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는 표본대상자들 중 남성들의 대부분이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이고 여성들의 대부분이 학생 및 주부등으로 이루어 보아 인터넷이 업무에 유용한 매체로 이용되고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남성의 경우는 여성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9>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9> 성별에 따른 지각된 즐거움, 이용용이성, 유용성과 인터넷 사용간의 상호작용효과분석

구분		평균 제곱	F값	유의 확률	
인터넷 사용	주효과	성별	16.6	13.307	0.070
		지각된 즐거움	55.835	43.979	0.019
인터넷 사용	상호작용 효과	성별* 지각된 즐거움	1.255	0.593	0.553
		성별	40.124	189.629	0.005
인터넷 사용	주효과	지각된 이용용이성	37.832	163.516	0.003
		성별* 지각된 이용용이성	0.212	0.107	0.898
인터넷 사용	주효과	성별	43.387	6.101	0.141
		지각된 유용성	46.426	6.134	0.131
인터넷 사용	상호작용 효과	성별* 지각된 유용성	7.604	4.010	0.019

4.4 가설 검증 결과 정리 및 결과해석

4.4.1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은 먼저 인터넷 사용과 지각된 즐거움, 이용용이성, 유용성 관계를

<표 10> 가설 검증 결과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 변수	결과
가설1	지각된 즐거움	인터넷 사용		채택
가설2	지각된 이용용이성	인터넷 사용		채택
가설3	지각된 유용성	인터넷 사용		채택
가설4	성별	지각된 즐거움		기각
가설5	성별	지각된 이용용이성		채택
가설6	성별	지각된 유용성		기각
가설7	지각된 즐거움	인터넷 사용	성별	기각
가설8	지각된 이용용이성	인터넷 사용	성별	기각
가설9	지각된 유용성	인터넷 사용	성별	채택

검증하는 것으로 가설 1, 2, 3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지각된 즐거움, 이용용이성, 유용성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가설 4, 5, 6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과 지각된 즐거움, 이용용이성, 유용성에 대한 성별차이의 조절효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가설 7, 8, 9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10>과 같다.

4.4.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를 아는 경영자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를 고려해서 정보기술을 할당해야 하겠다.

V. 결 론

5.1 연구요약

본 연구는 기존문헌을 통해서 정보기술수용모델과 내적 동기이론을 고찰하여 여기에 성별이라는 조절변수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들은 정보기술수용모델인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을 주요 변수로 하고 내적 동기이론에서 도출한 지각된 즐거움을 추가로 하여 여기에 성별을 추가함으로써 TAM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344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수립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이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이용용이성만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이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서 성별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유용성만이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5.2.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TAM의 모형을 확장하여 여기에 성별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유용성, 이용용이성, 즐거움은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각된 이용용이성만이 성별간에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유용성 면에서는 성별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 이용용이성, 즐거움에 대한 인터넷 사용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 지각된 유용성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변수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5.2.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첫째,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이다. 연구의 광범위한 성격을 감안한다면, 원칙적으로 전국적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엄밀한 확률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등 여러 한계점으로 표본을 국한하여 추출하였으며, 연구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서 본 연구는 횡단적 분석에 그쳤다.

세 번째 한계점으로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박순창, 조직구성원들의 인터넷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분석, 박사학위논문, 2000.
- [2]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학현사, 1997.
- [3] 정충영, 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1998.
- [4] 동아일보, 1999. 8. 5.
- [5] 비즈니스, 1999. 10. 18.
- [6] 한국일보, 1997. 7. 9.
- [7] Adams, D.A., Nelson, R.R. and Todd, P.A. "Perceived Usefulness, Ease of Use and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 Replication," *MIS Quarterly*, Vol. 16, June, 1992, pp. 227-247.
- [8] Atkinson, M. & Kydd, C.,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World-Wide-Web use: an empirical study of playfulness and motivation," *The DATA BASE for Advances in Information Systems*, Vol. 28, 1997, pp. 421-458.
- [9] Burge, F., "Internet: The World of Mouth," *Electronic Design*, Vol. 43, No. 4, 1995, p. 64.
- [10] Chin, W., and Todd, P.A. "On the Use, Usefulness and Ease of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IS Research: A Note of Caution," *MIS Quarterly*, Vol. 19, June 1995, pp. 237-246.
- [11] Csikszentimihaly, M., *Beyond boredom and anxiety*, Jossey-Bass, San Francisco, 1975.
- [12] David, G. and Detmart W.S.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Use of E-mail: An Extension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MIS Quarterly*, December 1997, pp. 389-400.
- [13] Davis, F.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3, No. 3, 1989, pp. 319-339.
- [14] Deci, E.L., *Intrinsic Motivation*, Plenum Press, New York, 1975.
- [15] Deci, E.L and Ryan, R.M.,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Plenum Press, New York, 1985.
- [16] Frankel, K.A., "Women and Comput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1990, pp. 34-45
- [17] Julie E.K., and Jane W., "Computers and Playfulness: Humorous, Cognitive, and Social Playfulness in Real and Virtual Workplaces," *The DATA BASE for Advances in Information Systems*, Vol. 28, 1997, pp. 40-51
- [18] Ives, B., and Jarvenpaa, S.L. "Applications of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Key issues of Management," *MIS Quarterly*, 1991, pp. 33-50.
- [19] Malone, T.W., "Toward a Theory of Intrinsically Motivating Instruction," *Cognitive Science*, 4, 1981a, pp. 333-369.

- [20] Malone, T.W., "What makes computer games fun?" *Byte*, December 1981b, pp. 258-276.
- [21] Moon, J.W and Kim, Y.G., "Extending the TAM for a World-Wide-Web," *Information & Management*, Vol. 38, 2001, pp. 217-230.
- [22] Moore, G.C. and Benbasat, O.,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Perceptions of Adopting an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991, pp. 192-222.
- [23] Panteli, A., Stack, J., Atkinson, M., and Ramsay, H., "The status of women in the UK IT industry; an empirical study,"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999, pp. 170-182.
- [24] Ritu, A.E, K., "Time Files When you're having fun: Cognitive Absorption and Beliefs About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MIS Quarterly*, Vol. 24, 2000, pp. 665-694
- [25] Straub, D.W., "The Effect of Culture on IT Diffusion: E-mail and FAX in Japan and the U.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5, 1994, pp. 23-47.
- [26] Truman, G.E. and Baroudi, J.J., "Gender Differences in the Information Systems Managerial Ranks: An Assessment of Potential Discriminatory Practices," *MIS Quarterly*, Vol. 18, March 1994, pp. 129-141.
- [27] Venkatesh, V and Morris. M.G., "Why Don't Men Ever Stop to Ask For Directions? Gender, Social Influence, and their Role in Technology Acceptance and Usage behavior," *MIS Quarterly*, Vol. 24, March 2000, pp. 115-139.
- [28] Webster, J., and Martocchio, J., "Micro-computer Playful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with Workplace Implications," *MIS Quarterly*, Vol. 16, No. 2, 1992, pp. 201-226
- [29] <http://www.krnic.net>
- [30] <http://knp.adic.co.kr>

〈부 록〉

I. 다음은 인식된 즐거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귀하께서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V해 주십시오.

설 문 항 목	응답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확실하 그렇다
1.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종종 잊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인터넷을 이용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인터넷을 이용할 때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인터넷을 이용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인터넷의 이용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인터넷의 이용은 나의 탐구심을 이끌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인터넷의 이용은 나의 상상력을 유발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 다음은 인터넷의 이용용이성과 유용성 정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V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항 목	응답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확실하 그렇다
10. 인터넷의 이용법은 내가 배우기에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인터넷의 이용절차가 명확하고 이해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인터넷은 이용하기가 딱딱하고 유연성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인터넷 이용에 숙달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전반적으로, 인터넷은 이용하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인터넷은 나의 업무를 더 빨리 수행하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인터넷의 이용은 전반적인 업무 성과를 향상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인터넷의 이용은 나의 업무에서 효과성을 향상시킨다. (효과성: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인터넷의 이용은 나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생산성: 같은 결과에 대해 보다 투입이 적게 드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인터넷을 이용하면 나의 일이 더 쉬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전반적으로, 인터넷은 나의 업무에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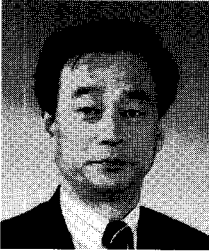
III. 다음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사항입니다.

설 문 항 목
22. 귀하의 하루에 몇 시간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 ① 30분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 2시간 ④ 2시간~3시간 ⑤ 3시간이상 ⑥ 4 ~ 5시간 ⑦ 6시간이상
23. 귀하의 일주일에 인터넷 이용 횟수는 평균 몇 번입니까? ① 전혀 사용하지 않음 ② 1주일에 한번이하 ③ 1주일에 한번이상 ④ 1주일에 2 ~3번 정도 ⑤ 1주일에 4번 이상 ⑥ 하루에 한번 ⑦ 매일 여러 번
24. 귀하의 일주일에 인터넷 이용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시간이하 ② 1 ~ 5시간 ③ 5 ~ 10시간 ④ 10 ~ 15시간 ⑤ 15 ~ 20시간 ⑥ 20 ~ 25시간 ⑦ 25시간이상

IV.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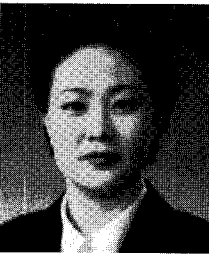
설 문 항 목	응 답 내 용
25.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6.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서비스직 ④ 자영업 ⑤ 학 생 ⑥ 주 부 ⑦ 기타 ()
27.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28. 귀하의 한달 수입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150만원미만 ③ 150만원 ~ 200만원미만 ④ 200만원 ~ 300만원미만 ⑤ 300만원이상
29.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이상 ⑤ 기타 ()
30.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이상

◆ 저자소개 ◆



이동만 (Lee, Dong-Man)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상대학장/경영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IT의 전략적 활용, B2B 전자상거래 분야이다.



이영숙 (Lee, Young-Sook)

저자 이영숙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대은금융경제연구소에서 경영정보담당 주임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포항 1대학 e-경영전공 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징, GIS, 전자상거래 분야이다.



안현숙 (Ahn, Hyun-Sook)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강의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전자상거래, 지식경영, 데이터베이스 등이다.

◆ 이 논문은 2001년 8월 16일 접수하여 1차 수정을 거쳐 2002년 1월 9일 게재확정되었습니다.